

2022 11 vol.79

# 재난안전

# Brief

## 정책 Brief

-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Contents

## 정책 Brief

<b>01 충청북도 정책동향</b> .....	<b>03</b>
•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안전한 농촌 만든다 .....	04
• 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04
• 단양군, 겨울철 대비 빈틈없는 제설 대책 마련 .....	05
• 충북도,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 운영 .....	06
• 증평소방서 "이제 앱으로도 신고하세요" .....	07
• 충북도, 괴산지진(10. 29.) 후속 대책 추진 .....	08
• 충북도,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집중점검 .....	09
• 충북도, 겨울철 재해 대비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	09
• 충북도 재난안전실, 도내 캠핑장 안전 지킨다 .....	10
<b>02 중앙부처 정책동향</b> .....	<b>11</b>
• 행정안전부, 침수위험 예상지역 직접 찾아 나선다 .....	11
• 여가부, 청소년 시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	12
• 행안부, 지자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특교세 지원 .....	12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13
• 검토포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추진 .....	14
• 제설지원 사전 확보 등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	15
• 철저한 점검과 선제대응으로 겨울철 인명사고 막는다! .....	16
•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	18
• 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	19
•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 높인다 .....	20
• 11월 겨울철새 143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강화 .....	21
• 소방청, 화재피해 최소화 위해 가뭄지역 소방용수 확보 나선다 .....	22
• 소방청,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강화 .....	23
<b>03 타 지자체 정책동향</b> .....	<b>24</b>
• 고창서, 원룸촌 여성 안전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	24
• 대전시, 화재 사고 대비 지하층 건축기준 강화 .....	24
• 제주, 골목길 지능형 CCTV 확대... "수배차량 실시간 추적" .....	25
• 인천대교 갯길에 '투신 방지용' 드럼통 1천500개 설치 .....	26
• 부산교육청, 부산 전역 통학로 '안전지도' 만든다 .....	27
• "24시간 안전"...서울시, 안심이업 연계 '귀가택시' 운영 .....	28
•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쌍' 바뀌어...안전 사고 예방 .....	29
• 서초구, 재난안심서비스 알림으로 빌딩·건축물 안전 지킨다 .....	30
• 고양시, 지하 상수도 시설에 통신 중계기와 CCTV 설치 .....	31
• 대구 중구, 급경사지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31
• 인천 연수구, 78곳에 '맨홀추락 방지시설' .....	32

### ■ 집필진

배민기 센터장 (043-220-1127)

최신실 연구원 (043-220-1118)

###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주 소 |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 420호

홈페이지 | [www.cri.re.kr/](http://www.cri.re.kr/)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csri\\_cri](https://blog.naver.com/csri_cri)

재난안전 Brief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주요 재난안전 정책동향을 시의 적절하게 적시하고 그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월간지로서 충청북도 및 충북연구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홈페이지 ([www.cri.re.kr](http://www.cri.re.kr/))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Brief」

#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안전한 농촌 만든다

### ○ 주요내용

- 청주시는 올해 말까지 농촌지역 102개 마을 6천187가구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 마을방송시스템은 이장이나 통장이 마을 외부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각종 공지 등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각 마을회관의 송출장치(주장치)는 통신사를 통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이장이나 통장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송출장치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듯 방송 가능
  - 주민들은 마을에 설치된 옥외스피커와 각 가정 내에 설치된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 외출 등으로 방송을 듣지 못했을 경우 가정용수신기의 '다시 듣기' 기능 활용
  - 안전정책 관련 시급한 공지사항은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해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일시에 전파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재난경보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
  -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재난경보 알람을 꺼 놓았더라도 마을방송시스템의 재난경보를 통해 재난상황 전파·수신이 가능해지므로 마을방송시스템 도입은 향후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송출장치(주장치)〉



〈가정용수신기〉

## 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시설 768개소 등 2,034대 전수조사 -

###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768개소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월 한 달간 실시
  - 점검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선박(20t 이상), 교도·구치소, 종합운동장(5000석 이상),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설치 시설(시설현황 불입)과 의무설치 시설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으로 구성
  - 각 시군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정상작동(부속품 교체)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매월 자가점검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해,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

◆ 지자체  
청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37702>

◆ 일자  
2022. 11. 1.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보건정책과  
☎ 043-220-3143

◆ 일자  
2022. 11. 2.

## 단양군, 겨울철 대비 빈틈없는 제설 대책 마련

### 주요내용

- 단양군은 대설·한파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해 겨울철 빈틈없는 제설 대책 마련
  - 군은 오는 14일까지 사전 준비기간을 거친 뒤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 기간 운영
- 먼저 도로 등급별 제설작업 관리 협조 체계 구축에 따라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 도로를 관리하고 각 읍면은 소규모도로(농로, 마을안길 등) 관리
  - 이에 따라 군은 약 5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30개 노선 330km의 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력 23명(도로보수원 7, 제설장비 운전원 15)과 장비 백호(1대), 15t(5대), 5t(2대), 1t(8대)를 배치할 계획
  - 또한, 염화칼슘(100t), 소금(500t), 염수액(40t), 방화사(600㎡)를 확충해 대비에 온 힘을 다할 방침
- 산지마을 등 읍면 자체 제설이 어려운 지역에 1t 트럭 8대를 구비해 제설작업 전문업체 용역 시행
  - 이는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국지도로는 체계적인 제설계획에 의해 신속히 추진되는 반면 마을안길 등 소규모도로는 제설작업이 취약하고 기존에는 마을별 자원봉사자들이 제설 작업을 시행했으나 최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제설 취약 구간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대응
  - 또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읍면 제설작업은 트랙터 제설기 131대를 동원해 지속해서 운영하고 읍·면별 제설 취약 지역은 1t 제설 장비를 임차해 운영
- 이와 함께 고갯길, 급경사 구간에 모래 적치장과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적설과 결빙 상습구간에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
  - 또한, 군은 도로 제설 대책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전담 T/F팀 구성, 비상연락망 정비와 소관 시설 점검 등 협조 체계 구축, 재해 취약대상 조사·정비·점검실시 등 자연 재난 사전 대비에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대응 태세 확립



◆ 지자체  
단양군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37814>

◆ 일자  
2022. 11. 2.

## 충북도, 산불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 운영 - 산림연접지 내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 접수 -

### 주요내용

- 충청도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내 농업부산물 파쇄작업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파쇄기간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산림부서에서 파쇄신청 접수
  - 추수기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연접지(산경계로부터 100m 이내) 내 논밭두렁 태우기, 고춧대, 깻대 등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31%)으로, 이러한 소각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를 이용해 농업 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 추진
  - 이 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농업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
  - 또한, 사업에 따른 파쇄된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소각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어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파쇄작업을 추진하여 산림연접지 1,836ha에 대한 농업부산물을 수집·파쇄해 올해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
  - 산림연접지 내에서 깻대, 고춧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토지소재지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파쇄 신청 추천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산림복지과  
☎ 043-220-3772

◆ 일자  
2022. 11. 7.



## 증평소방서 “이제 앱으로도 신고하세요”

### ○ 주요내용

- 증평소방서는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문자, 스마트폰 앱(App), 영상통화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실시
  - 문자 신고는 범죄자와 함께 있는 등 음성통화가 곤란하거나 전화 신호가 잘 잡히지 않을 때 유용하며, 사진과 동영상 등의 자료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재난 상황 파악과 상황에 맞는 대처에 유리
  - 119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119신고’ 앱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달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 높음
  - 영상을 통한 신고방법은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 등 음성으로 상황 설명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로 주위 상황을 비추면 정확한 현장 상황 전달 가능
  - 또한,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환자에게 더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 환자 소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지자체  
증평군

◆ 출처  
소방방재신문  
<https://fpn119.co.kr/1865>  
18

◆ 일자  
2022. 11. 8.

## 충북도, 과산지진(10. 29.) 후속 대책 추진 - 지진 원인조사 및 내진보강으로 안전한 충북 조성 -

### ○ 주요내용

- 충북에서는 지난 10월 29일 8시 27분 과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 발생
  - 이번 지진은 계기관측(78년) 이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역대 규모로는 38번째로 큰 지진이며, 지진의 흔들림이 수도권에도 감지되었으며, 본진 이후 23회의 여진이 지속 발생하고, 19건(주택 17, 공장 1, 석축 1)의 경미한 파손 피해 발생
- 충북도는 지진발생 후 즉각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운영하였고, 긴급대처상황 점검회의를 통하여 과산군에 피해대응지원관 파견과 협업기관(37사단 등) 상황실 가동, 응급복구 등 신속한 대응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과 지진피해 건축물의 안전점검 실시
  -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발생 원인을 알아내고자 10월 29일부터 과산지진 진앙지로부터 8km 이내에 이동식지진계 8개소를 설치하고 여진을 관측하고 있으며, 여진 관측이 종료되면 자료 분석을 통해 개략적인 지진 발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충북도는 기상청에서 과산지진의 정확한 지진원인 분석을 위해 '27년 실시 예정 용역인 '한반도 지하단층 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 Ⅲ단계 사업(충청권)'에 부지 마련 등 적극 협조할 계획
  - 11월 10일부터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도의 상황전파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 (1초 이내 통보)를 운영하여 지금보다 더 신속한 지진대응이 가능할 전망
  - 또한, 2023년까지 과산에 상시 지진계를 1개소(과산 청안)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지진관측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
  - 아울러, 충북도는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21년 기준 60.5%)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10건, 61억)를 신청하였으며, 도와 함께 사군에서도 일반예산 등 가용 가능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강화

#### ◆ 주관기관

충북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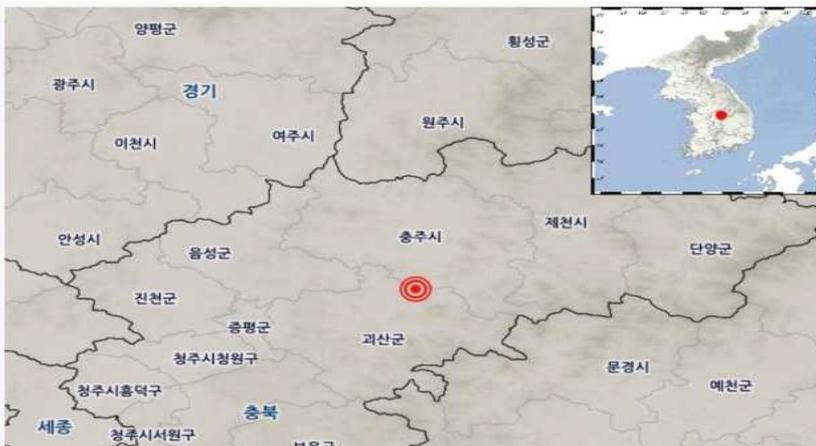
#### ◆ 문의

충북도청 자연재난과  
☎ 043-220-2463

#### ◆ 일자

2022. 11. 9.

지진 발생위치



## 충북도,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집중점검

- 재난 위험 10대 중점시설 안전관리 추진 -

### ○ 주요내용

- 충북도는 최근 괴산지진, 이태원 사고 발생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 특별지시를 통해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주요 공중이용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우선 10대 중점시설로 정하여 안전점검과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
  - 도내 10대 중점시설은 모노레일, 케이블카, 짚라인, 출렁다리, 패러글라이딩, 유도선, 수상레저, 공연장, 캠핑장, 댐, 공중이용시설이며 최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
  - 안전관리 방안으로 시설별 자체 안전점검 계획과 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감찰을 병행할 계획
  - 또한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수반되는 예산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도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도민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
  - 특히, 이번 계획은 1회성 점검이 아닌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획 안전감찰 및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

#### ◆ 주관기관

충북도청

#### ◆ 문의

충북도청 안전정책과  
☎ 043-220-2492

#### ◆ 일자

2022. 11. 13.

## 충북도, 겨울철 재해 대비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 사전관리 강화로 농업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 노력 -

###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한파, 대설 등과 같은 겨울철 재해로부터 농업분야 재해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 종합대책 추진
  - 농업재해 종합대책은 도시군-한국농어촌공사농협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대응 기반을 마련으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획 포함
  - 도 유기농산과는 겨울철 기상전망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기상특보, 재해유형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안전 관리요령, 겨울철 야외 농작업 안전지침 등을 상시 전파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
  -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할 계획
  -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가입요건 완화, 특약 확대 등으로 해마다 가입률이 크게 증가

#### ◆ 주관기관

충북도청

#### ◆ 문의

충북도청 유기농산과  
☎ 043-220-3634

#### ◆ 일자

2022. 11. 17.

\* 연도별 가입실적 : ('18)16,538ha → ('19) 19,780ha → ('20) 24,744ha → ('21) 26,770ha

## 충북도 재난안전실, 도내 캠핑장 안전 지키다

- 안전한 캠핑을 위해 캠핑장 안전 수칙 홍보물 제작 배포 -

### ○ 주요내용

■ 충북도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급증한 도내 캠핑장\* 안전을 위해 안전 홍보물을 도내 234개소 캠핑장에 제작·배포

〈2022년 3분기 도내 캠핑장 개소수〉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계	234	15	33	74	15	5	12	1	10	36	5	28
일반야영장업	193	12	24	66	13	4	11	-	7	35	3	18
자동차야영장업	41	3	9	8	2	1	1	1	3	1	2	10

\* 2017년 132개소 ⇒ 2022년 234개소

-도내에서는 2010년 이후 캠핑장 내 안전사고로 인해 총 3건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며, 도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사고의 위험이 있는 11종 유형(질식, 화재, 폭발 등)에 대한 안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차박 안전, 식중독 예방 사항, 캠핑장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등 크게 4분류로 구분하여 제작

-이는 지난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시·군·구 건의사항으로 급증하는 캠핑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

-특히, 여가를 즐기기를 위한 캠핑이 불행한 사고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 등 화기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및 폭발사고 예방수칙 등을 홍보물 내용에 담아 도민이 안전하면서 즐겁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안내

### 캠핑 안전수칙!

- 01** 난로 등 화기 난방 기기 사용 시 환기구를 반드시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필수로 준비합니다.
- 02**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꼭 환기구를 작은 조리기를 사용하고, 가스는 화기 근처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 03** 바람막이 사용으로 부탄가스 용기 과열을 방지해요.
- 04** 전기용량을 체크하여 총 600W 미만으로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 05** 텐트에서 취침 시 가스렌턴 등을 반드시 소등합니다.

- 06** 난로 등 난방 기기는 꼭 끄고 텐트 밖에 두고 갑니다.
- 07**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진흙 정리를 철저히 해요.
- 08** 화기 주위에 부탄가스는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 폐기 합니다.
- 09** 캠핑장에서 이동 시 텐트 등을 고정된 줄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발에는 고령 줄이 보이기 쉬운 야영용이나 광박이(스트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10**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전점검을 꼭 하세요.
- 11**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해먹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 안전하고 현명하게 차박 하기

**방관길, 경사진 길 피하기**

- 4륜 차량이라도 하더라도 경사가 심한길, 노 쌓인 길, 방관길 등은 우회하기
- 우회할 수 없을 경우 진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
- 차량 1대로 혼자 가기 보다는 차량 2대 이상 함께 떠나기

**올바른 일산화탄소경보기 선택은 필수**

- KFI 승인 제품으로 고르기 (일산화탄소경보기는 KC인증과는 관련 없음)
- 한 개보다는 브랜드가 서로 다른 2개 기기 중복 사용하기
- 제품에 따라 3~5년정도 사용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용 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

**잠을 청할 때도 방심은 금물**

- 난방을 할 수 있는 셀터를 따로 설치하여 취침공간과 생활공간 분리하기
- 뒷백이나 전기요 등 유해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난방용품 준비하기
- 잠남은 하나보다는 2개의 저렴한 제품을 이용으로 밀어 제온 지키기

차박은 안전하게!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안전정책과  
☎ 043-220-2364

· 일자  
2022. 11. 22.

##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행정안전부, 침수위험 예상지역 직접 찾아 나선다

- 11월 2일부터 연말까지 침수위험지구 민·관합동 일제조사 -

#### ○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일(수)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 실시

-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 농지, 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한 유형을 의미
- 그러나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제 11호 태풍 「힌남노」 내습 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침수위험지구의 선제적 발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65명으로 ‘취약지역 발굴단’ 구성
-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 도출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 방향과 피해 예방 대책 등도 자문할 예정
-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

####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044-205-5151

#### ◆ 일자

2022. 11. 1.



출처 : 경향신문

## 여가부, 청소년 시설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 이용청소년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및 청소년 시설종사자 교육 의무화 -

### ○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 적극 실시
  -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사고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배포
  - 청소년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안내
  -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보수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추가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운영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

## 행안부, 지자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특교세 지원

- 집중안전점검 긴급 보수·보강 및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비용 696억 -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시 발견된 안전 위험시설 해소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210억 원을 긴급 지원
  - 집중안전점검 기간, 생활 주변 안전 취약 시설을 지자체와 안전 전문가 단체가 협력하여 점검하였으며 그 중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신청받아 보수·보강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정비가 필요한 교량, 낙석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경사지,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저수지 등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47개소) 정비에 사용
-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시설의 복구를 위해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485.7억 원 지원
  - 피해 복구액 총 7,802억 원 중 국비 5,524억 원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피해 규모 및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54.5억 원 지원
  - 또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은 지자체 중 도로, 해안시설 등 규모가 큰 피해 시설의 복구에도 31억 원 추가 지원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02-2100-6269

◆ 일자  
2022. 11. 3.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044-205-5126

◆ 일자  
2022. 11. 4.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가정해 비상저감조치 훈련 및 점검 -

### ○ 주요내용

■ 환경부는 11월 9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이번 훈련은 2019년 3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
- 2019년부터 올해로 4번째인 이번 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 점검 진행

■ 올해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매뉴얼)’에 따라 11월 8일 오후 5시 10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

〈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

위기 경보 단계	관 심	주 의	경 계 / 심 각
비상저감조치	조치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3단계
주요 조치사항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점검 등	(+ 공공부문 조치 강화) *공공사업장 추가 저감,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	(+ 재난 대응) *민간 2부제(자율/강제), 재난관리법상 응급조치 등

-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11월 9일 오전 6시부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과 서면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
-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관공공사장 가동 단축(시도별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 실시
-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
- 훈련 이후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모의훈련 참여사업장 중 하나인 강남자원회수 시설(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을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현황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살펴볼 예정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044-201-7723

◆ 일자

2022. 11. 9.

## 검역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추진

### ○ 주요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
  - 이를 위해 2022년 빅데이터 기반 가축방역통합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 평가를 위해 검역본부 정보화 예산(약 8억 원)을 활용하여 축산차량 이동, 철새 유입, 철새도래지 등 농장 주변 환경, 사육시설 및 형태 등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을 추진할 예정
  -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까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
  - 지금까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발생농장 사육현황 및 방역대 설정, 역학차량 정보, 축산차량 이동정보, 철새도래지 정보, 거점소독시설 위치정보 등 자료를 활용하여 가축방역 업무 추진
  - 앞으로 검역본부는 한정된 방역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가축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동안 축적된 가축전염병 관련 정보와 유입·전파, 역학·방역 관련 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가축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가축방역 시스템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고도화해 나갈 계획
  - 빅데이터 기반으로 가축방역통합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가축전염병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관리하고, 지역별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방역 조치사항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농장별 위험요인 변화에 따라 맞춤형 알림서비스도 제공 가능

####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빅데이터팀

☎ 054-912-0376

#### ◆ 일자

2022. 11. 10.



## 제설자원 사전 확보 등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2.11.15.~2023.3.15.) 운영 -

### ○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2.11.15.~2023.3.15.) 돌입

※ 기상청, 겨울철(12월~2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현재의 기후감시요소(라니냐, 적은 북극 해빙 등) 지속 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전망

- 정부는 '현장중심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로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 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에 구매하고 취약지역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가능토록 제설전진 기지 981개소를 사전 구축

- 또한, 제설제·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 마련

※ 제설제 81만 톤(ton), 제설장비 14,429대 확보 ('22.11.11.기준)

#### ■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체 등 돌발 발생 시 우회안내, 도로 통제 등의 관련정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

- 특히, 기존 돌발상황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에 대해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하여 운전자 피해를 사전 예방

- 또한, 지방도로, 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치(자동염수분사장치, 도로열선 등)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도로 등에 통행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

\* 자동제설장치('21년 1,462→'22년 1,631개소),

\*\* 소형제설장비('21년 1,900→'22년 2,307대)

- 그 밖에,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한용품과 한파저감시설(온열의자, 방풍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

\* 한파 저감 및 취약계층을 위한 특교세 60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 후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 대응

\* 5개 중앙행정기관 8개반 72명 구성 중앙합동점검 실시(11.7.~11.11.)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 044-205-5231

◆ 일자  
2022. 11. 14.

## 철저한 점검과 선제대응으로 겨울철 인명사고 막는다

- 기상악화, 화재위험 증가 등 겨울철 위험요인 집중관리 -

### ○ 주요내용

####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2주가량 앞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 겨울철은 연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기상악화 및 화재·전복사고 등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 해양사고 사망·실종(17~'21): 겨울(172명) > 가을(168명) > 봄(152명) > 여름(99명)

- 이에 해양수산부는 안전사고, 충돌, 전복 등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여객선, 고위험선박 등 주요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사고·재난 대비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겨울철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 우선, 해양수산부는 실족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홀로 선박\* 350척에 대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11월 말까지 완료

- 또한, 조업이나 항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줄 착용 등 작업안전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12개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

\* 승선원 1명인 조업어선으로 해상추락 사고 발생 시 자력으로 구조하기 어려운 선박

- 아울러,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주변 선박정보 범위를 30마일로 확대(종전 6마일)해 선박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충돌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과 레저선박에 대한 충돌예방 집중교육도 실시

#### ■ 설명절 귀성객 수송 등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160척)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여객선(24척) 여객수송 재개에 따른 안전 점검 추진

- 또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근해연승·자망어선 등 30척을 대상으로 화기사용, 전기·가스설비, 연료탱크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내 계류선박에 대한 수시 순찰을 강화할 계획

- 11월 17일(목)에는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항해 통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와 구명설비, 기관실 내 발전기 등의 상태, 그리고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

- 한편, 연중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손상사고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 지자체, 수협 및 선박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시도별 연근해 어선 100척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자가정비 요령 동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

◆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46

◆ 일자  
2022. 11. 16.

■ 여객선·여객터미널 등 소관 다중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인파사고 안전관리실태 등을 긴급점검\*하고, 각종 재난 등 유사 시 즉각대응이 가능토록 종합상황실 상황근무 관리도 강화

- 또한, 해양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를 적극 실시하고, 사고다발 해역\*\*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경비정 근접배치

\* 점검대상: 연안여객선 150척, 국제여객선 3척, 여객터미널 15개소, 박물관·체험관 5개소, 학교 2개소(다중이용시설 22개소, 여객선 153척 등) / 점검기간: ~12.9

\*\* 동절기 사고다발해역 73개소 지정(전국 20개 해경관서별, '22.10월 기준)

	
<p>〈양양기 비상정지장치 시연〉</p>	<p>〈해양안전 현장 캠페인〉</p>
	
<p>〈국제여객선 터미널 현장점검〉</p>	<p>〈카페리화물선 안전점검〉</p>
	
<p>〈나홀로선박 구명조끼 보급〉</p>	<p>〈하역설비 점검〉</p>

##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 선정해 안전 확인 -

### ○ 주요내용

#### ■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

-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총 14개)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 7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서산, 여수, 충주, 구미, 익산)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

#### ■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특히,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하여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 추진

-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

\* 노후시설 및 방류벽 등 화학안전 시설 구축·개선 비용의 70%를 국비보조

\*\* 설치검사 사전 지원, 취급시설기준 준수 기술지원 등 전문 진단(컨설팅)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7

◆ 일자  
2022. 11. 15.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여부 확인



민·관 합동 집중점검

## 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

- 수능 종료 후 밀집 우려 장소 시·도별 합동점검(11.16.~17.) -

### ○ 주요내용

- 정부는 이태원 사고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핫라인) 운영
  -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심리지원단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 직통 전화를 운영하여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제공
  - 심리상담 과정에서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여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이태원 사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 또한, 다누리 전화 상담실(1577-1366)를 통해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하여 12개 언어\*에 대해 통역 지원
    - \*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라오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크메르어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주민 등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제공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직통 전화(1670-9512)로 전화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국민 누구나 24시간 심리상담 가능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044-205-5341

◆ 일자  
2022. 11. 15.

### 〈 이태원 사고 관련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상담전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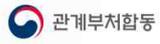
##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상담전화 안내

이태원 사고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이 힘든 분들은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 국민	<b>1577-0199</b>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
외국인 (통역이 필요하신 분)	<b>1577-1366</b>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누리콜센터
청소년	<b>1388</b>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 1388
일반 국민	<b>1670-9512</b>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 높인다

- 수능 종료 후 밀집 우려 장소 시·도별 합동점검(11.16.~17.) -

###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 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

\*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방재/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16 제정)

-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1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

-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 ~ 3.5m인 점을 고려하여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

-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로 상향(기존 2m)

-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강화(100km/h 기준, 460→1,525m)

\* 최소평면곡선반지름(R) : 평면 곡선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곡선반지름 값이며, 설계속도에 따라 규정됨

-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하여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 기존보다 강화(최대 12% → 7%)

-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하여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적용

-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

- 또한,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

\* 화재발생 시 해당구역의 연기를 터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도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화재 구역 외 타 구역으로의 연기 전파가 적음

- 터널 내에서 GPS 수신에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 제시

-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 제시

\* 표준규격(60cm × 750cm), 문자 높이(60cm), 적정 문자 수(10문자 이내) 등을 규정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7

◆ 일자  
2022. 11. 17.

# 11월 겨울철새 143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강화

- 환경부, 11월 철새도래지 200곳 조류 동시 총조사 결과 공개 -

## ○ 주요내용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3일간 '겨울철 조류 전국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111종 약 143만 마리의 겨울철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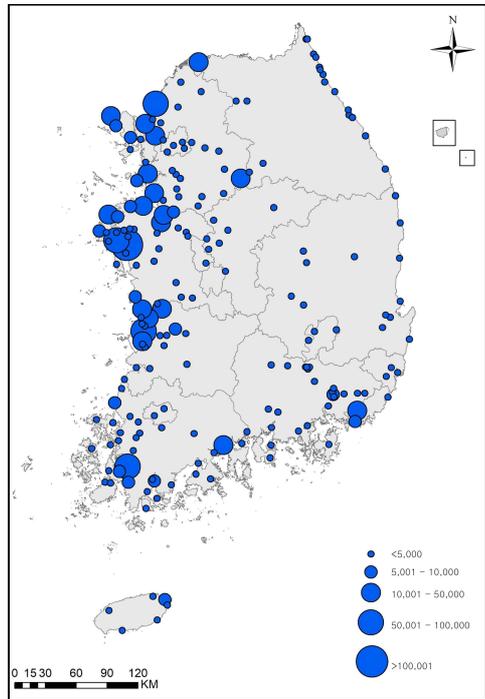
- 환경부는 전국적인 철새 도래 경향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매달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 실시

- 올해 11월 조사 결과,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60만 마리(72% ↑)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21만 마리(17% ↑)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54만 마리(97% ↑), 전년 동기 대비 약 17만 마리(18% ↑) 증가

- 지역적으로는 간월호, 만경강하류, 영암호, 부남호, 임진강 등 충남, 전북, 전남 및 경기 서부 해안지역에 겨울철새가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 확인

〈11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



■ 환경부는 이번 11월 겨울 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내년 1월까지 겨울 철새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신속 대응체계 유지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 87곳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폐사체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밀 검사하는 등 대응 강화

- 또한, 지자체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 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동물원 등 조류 전시, 관람, 보전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상황 점검

-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에 민감한 오리과 조류의 이동과 분포현황,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농가 방역도 지원

### ◆ 주관부처

환경부

### ◆ 문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 044-201-7502

### ◆ 일자

2022. 11. 20.

## 소방청, 화재피해 최소화 위해 가뭄지역 소방용수 확보 나선다

- 남부지방, 역대 최저 강수량 기록...화재 대비·대응 대책 마련 총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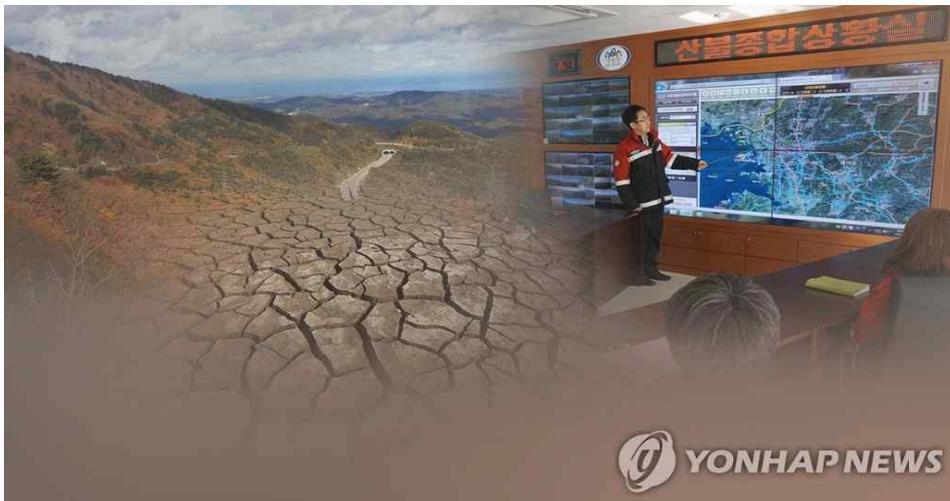
### ○ 주요내용

#### ■ 소방청은 최근 남부지방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가뭄지역 화재 대비·대응 대책 추진

- 정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665mm)이 평년의 65.5%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기상가뭄(기상학적 가뭄) : 특정 지역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
- 최근 전라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30%대로 떨어지는 등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소방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

#### ■ 이에 따라 소방청은 가뭄에 따른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뭄대비 비상소방용수 확보, 하천·해수를 활용한 소방차 흡·방수 훈련,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소방용수 확보 기반 구축 등 대책 마련

- 가뭄지역 내 소방용수로 사용 가능한 하천·농업용 관정 등 자연·인공수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 확보
  - \* 인공수원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영장 등 유사시 사용가능한 수원
- 또한, 자연·인공수원에 소방차량 흡수관과 동력소방펌프를 활용한 흡수훈련과 방수훈련을 실시하며,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바닷물을 이용한 흡·방수 훈련도 병행
- 이밖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가뭄해소 대책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도서·산간 상수도 보급 확대, 저수지 준설, 보조수원 개발 등 소방용수 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



출처 : 연합뉴스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044-205-7471

◆ 일자  
2022. 11. 21.

## 소방청,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강화

- 화재예방법, 특급·1급 대상 훈련결과 의무 제출, 요양병원 등 불시 훈련 신설 -

### ○ 주요내용

■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 강화

- 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 필수

■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다중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 시설

-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하며,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소방훈련·교육 다시 실시

- 평가 내용은 소방훈련·교육 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그 밖의 소방훈련·교육 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 044-205-7451

◆ 일자  
2022. 11. 25.



출처 : 뉴스시스

##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고창서, 원룸촌 여성 안전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 ○ 주요내용

##### ■ 고창경찰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창읍 월곡리 주택가 원룸 주변 도로(116미터 구간)에 하이브리드형 도로표지병 33개 설치

- 지난 5월 고창 군민 5만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창읍 월곡리 주택가 주변이 어두워서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
- 하이브리드 도로표지병은 낮 시간대 태양열을 축적해 두었다가 야간에 빛을 발하는 충전식 발광기구로 축적된 태양열은 장마철 등 궂은 날씨에도 장기간 사용 가능
- 단독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월곡리 주택가, 원룸, 월곡공원 주변 도로(월곡6길)에 하이브리드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조도를 개선하고, 야간 통행시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등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자체  
전라북도 고창군

◆ 출처  
대전북신문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1093>

◆ 일자  
2022. 11. 3.

### 대전시, 화재 사고 대비 지하층 건축기준 강화

#### ○ 주요내용

##### ■ 대전시는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

- 시에 따르면 이번 건축기준은 5000㎡ 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지하층 마감재는 가연재 설치를 금지하고 불연재료를 사용 권고
- 또 해당 건축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휴게시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 금지
-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 권장
- 다만 고저차로 인해 직접 피난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허용했으며, 부득이하게 지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곳에 창호 및 출입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휴게시설은 화장실,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하고, 휴게시설에는 세면기,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해 설치하도록 규정
- 특히 대형건축물 등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시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 건축심의 시 적극 유도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

◆ 지자체  
대전광역시

◆ 출처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555>

◆ 일자  
2022. 11. 9.

## 제주, 골목길 지능형 CCTV 확대..."수배차량 실시간 추적"

### ○ 주요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부터 골목길 내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을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

- 차량번호 인식 전용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지능형 차량번호 검색시스템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차량번호를 인식·검색 가능
- 경찰관서에서 수배차량 검색 요청 시 실시간으로 골목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가동해 문체 차량을 포착하면 관제상황실에 해당 차량의 번호와 위치정보 자동 표출
- 이를 통해 차량 위치정보를 경찰관서로 신속하게 제공해 사건·사고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제주도는 그동안 차량검지 센서 방식인 차량번호 인식 전용카메라(235대)를 주요 도로에서 활용해 왔으나,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이 제한적이어서 주요도로 외 이동경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또 차량번호 인식 전용 카메라는 구입비와 설치비 등이 필요해 예산 투입 대비 설치 가능한 수량이 많지 않아 확대 설치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
- 이번 사업으로 별도의 설치공사비 없이 기존 카메라를 활용해 차량번호 인식 및 차량 검색이 가능해져 간선도로 외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도 수배차량, 농산물 범죄차량 등의 이동경로 파악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제주도는 경찰청과 협업해 범죄 다발지역 43곳, 교통사고 및 상습 법규위반 장소 71곳 등 주요 방법용 CCTV 3300대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방법 및 치안 예방활동 등 차량을 이용한 사건 처리 또한 적극 지원할 예정
- 또한 제주도는 앞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해 불법 대포차량 수색, 체납차량 영치 등 체납된 지방세 징수 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



출처 : 연합뉴스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594>

◆ 일자  
2022. 11. 14.

## 인천대교 갯길에 ‘투신 방지용’ 드럼통 1천500개 설치

### ○ 주요내용

#### ■ 인천대교 갯길에 투신사고 방지를 위한 드럼통(PE드럼) 1천500개가 새롭게 설치

-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21.4km 길이의 국내 최장 교량으로 2009년 개통 이후 지속적인 추락사고 발생
- 인천대교 측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교 개통 이후 모두 65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해 54명이 숨졌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락 사고는 매년 2~5건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1건으로 급증
- 올해는 지난 4~6일 사흘간 사망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달 기준 총 20명이 투신하고 16명이 사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
- 인천대교 측은 오는 17일부터 투신사고 다발 지역인 인천대교 사장교와 접속교 등 3km (양방향 6km) 구간 갯길에 5m 간격으로 총 1천500개의 드럼통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드럼통에는 심야시간대 시야 확보를 위한 LED 안전표시등 부착
- 아울러 인천대교 측은 차량 순찰 횟수를 하루 24회·600km에서 26회·700km로 늘리고, 오는 23일 인천시·해경·인천자살예방센터와 업무 협력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

◆ 지자체  
인천광역시

◆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4147400065?input=1195m>

◆ 일자  
2022. 11. 14.



출처 : 연합뉴스

## 부산교육청, 부산 전역 통학로 ‘안전지도’ 만든다

### ○ 주요내용

#### ■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전역 초·중·고교 630여 곳의 통학 안전지도를 내년 중 학교별로 제작할 계획

-올해 7월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부산일보 7월 6일 자 10면 등 보도)를 계기로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전역 초·중·고교의 통학로 위험 요소를 표시한 ‘통학 안전지도’ 제작 추진

-통학 안전지도에는 개별 학교의 경사로와 주변환경 등 통학위험요인과 맞춤형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전역 학교의 각기 다른 통학로 위험 요소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기를 기대

-그간 통학로 안전관리는 여러 기관과 부서에 업무가 분산돼있어 학교의 개별 위험 요소 파악과 맞춤형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각 학교 통학로의 위험 요소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지도 제작 추진

#### ■ 통학 안전지도의 첫 시범사례로는 인근에 공장이 많아 화물트럭의 이동이 잦고, 보행로와 차로의 분리가 안 돼 있어 위험한 통학환경으로 지적된 사하구 구평초로 선정

-지난 4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구평초를 방문해 통학버스 승차지점과 통학로 점검을 하고 부산시, 사하구청, 경찰청에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구평초 통학 안전지도는 올해 안에 제작될 예정

-통학 안전지도는 제작 이후 통학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공개될 예정이고 시교육청은 제작된 지도를 바탕으로 학교별로 맞춤형 통학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

◆ 지자체  
부산광역시

◆ 출처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1511133987698>

◆ 일자  
2022. 11. 15.



## "24시간 안전"...서울시, 안심이앱 연계 '귀가택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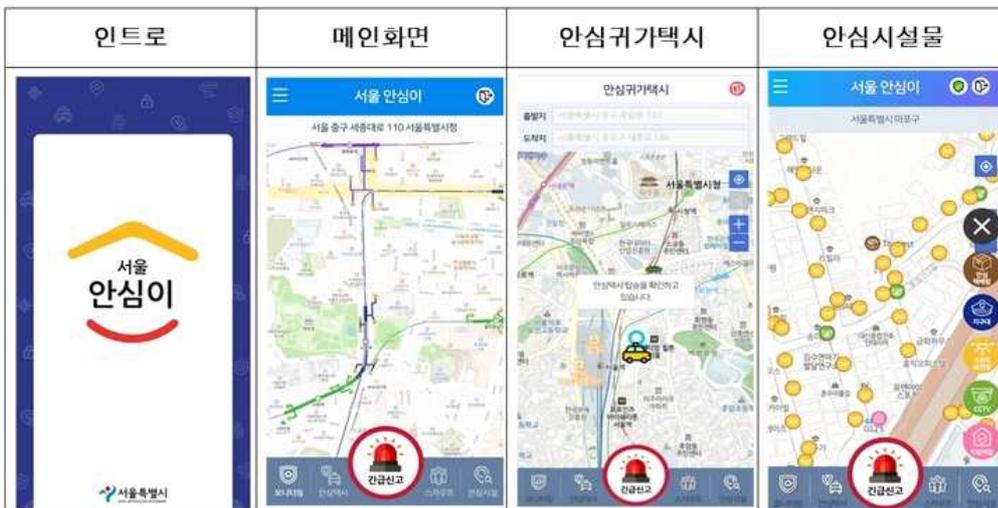
### ○ 주요내용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6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7만여대의 모든 택시와 안심이 앱을 연계한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실시
  - 서울택시로 귀가하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택시 승차전에 안심이 앱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쉽고 안전하게 귀가 가능
  - 안심이 앱은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스마트 CCTV 7만대가량을 연결해 실시간 귀가 모니터링 등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위기상황시 경찰과 협력해 현장출동도 가능
  - 시는 약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류 등을 점검해 12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
- 서울시는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시범운영과 함께 5년 만에 안심이 앱 서비스도 전면 개편하고,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신고 방법 개선 추진
  - 특히 안전한 밤길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는 24시간 실시간 예약 가능
  - 기존에는 귀가동행 서비스 운영 시간 30분전인 오후 9시30분부터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 귀가동행 서비스를 원하는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예약 및 스카우트 배정 알림, 지정장소에 도착하기 전 스카우트 도착 상황 등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안내 가능
  - 기존에는 앱상의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 흔들기만 가능했으나, 볼륨버튼(음량증가, 음량감소)중 하나를 3번 누를 경우에도 자동으로 긴급신고 접수 진행
  - 또 복잡했던 안심이 앱 메인화면을 주요 서비스 위주로 직관적으로 배치 구성했으며, 스마트 보안등 위치정보 등 안심시설물의 위치도 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

◆ 지자체  
서울특별시

◆ 출처  
뉴스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5\\_0002086109&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5_0002086109&cID=10201&pID=10200)

◆ 일자  
2022. 11. 15.



##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씩’ 바뀌…안전 사고 예방

### ○ 주요내용

#### ■ 서울 중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대폭 개선

- 구는 지난 9월부터 학교,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한 보행로를 구축하기 위해 보행환경과 교통 안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공사 돌입
- 이달 말 공사가 마무리되면 중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의 눈에 '확' 띄도록 '씩' 바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종립어린이집과 약수어린이집 앞 이면도로 포장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 디자인 블록을 눈에 띄는 무늬의 밝은색으로 구성
- 태양광을 받아 충전하는 스마트 교통표지판도 설치하여 야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밝게 빛나 운전자가 쉽게 인식 가능
- 리라초와 봉래초 앞 횡단보도 바닥에는 LED 바닥 신호등을 깔아 휴대폰을 보며 걷어가는 보행자가 바닥에 들어오는 붉은 빛을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도록 유도해 사고 예방 가능
-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는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고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신일유치원, 청구초, 흥인초 앞에는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다산어린이집, 신당5동 어린이집 등 6곳에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어려운 이면도로는 별도로 보행로를 표시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도사리던 곳에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새로 그려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조치
- 구는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는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이 대기소인 '엘로카펫 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며, 광희초와 청구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8개 지점에 11월 까지 새로 조성하거나 교체 추진

#### ◆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 ◆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72>

#### ◆ 일자

2022.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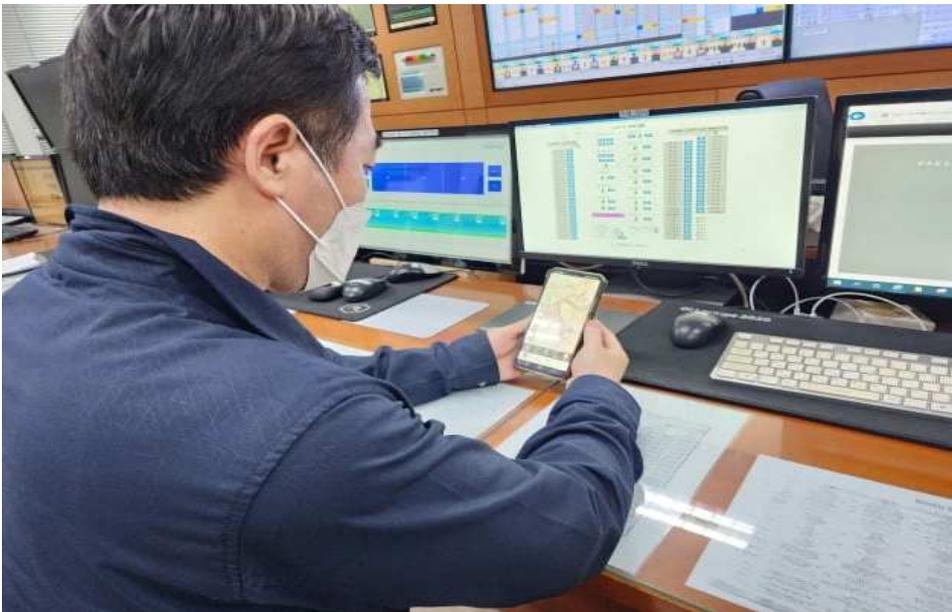
## 서초구, 재난안심서비스 알림으로 빌딩·건축물 안전 지킨다

### ○ 주요내용

#### ■ 서울 서초구는 이달부터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관리를 위한 ‘서초 건축알림이’ 앱에 ‘재난안심서비스\*’ 기능 추가

\* 이번에 추가된 ‘재난안심서비스’ 기능은 기상이변, 안전사고 발생 시 푸시 알림을 통해 상황별로 재난대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긴급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시간 상황전파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

- 갑작스럽게 폭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해 건축물의 안전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전대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서초 건축알림이’ 모바일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재난 행동요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물관리 정보 확인 가능
- 예를 들면 집중호우 예보 시 실시간으로 기상청 예비특보 발효 현황을 알려준 후,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차수판 설치 및 차량 이동 등 구체적인 재난예방 안내를 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서초 건축알림이’ 푸시 알림을 통해 제공
- 서초구는 현재 ‘서초 건축알림이’ 모바일앱 기능고도화를 통해 대형건축물 153곳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중형건축물 약 500곳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
- 이번 사업으로 재난상황 발생시 빌딩, 공동주택 등 건축물 관리자가 앱을 통해 차수판 설치 등 긴급조치 결과 게시 및 SOS 요청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서초 건축알림이’ 앱은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 주요 기능은 지역 내 안전사고 발생시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앱으로 신고하면 구청 담당자가 현장출동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안전점검 일정 및 공사장 인허가 현황을 제공하고, 폭우, 폭설 등 기상예보 제공을 통한 안전조치 가능



#### ◆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출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38172i>

#### ◆ 일자

2022. 11. 23.

## 고양시, 지하 상수도 시설에 통신 중계기와 CCTV 설치

### ○ 주요내용

#### ■ 고양특례시는 안전사각지대 없는 상수도 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하 상수도 시설에 통신 중계기와 CCTV 설치 완료

- 고양시가 운영 중인 상수도 시설지 18곳 중 8곳은 수도물 생산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 공동구가 설치돼 있으나, 지하 공동구는 대부분 90년대에 준공됐으며 지상 시설물과 달리 접근이 어려워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또한 작업 인력이 수시 점검과 유지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곳이지만 통신이 어려워 출입자의 안전 사각지대에 속함
- 고양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KT, LGU+, SKT 통신 3사측과 민·관 협력을 통해 중계기를 설치하고, 공동구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 대구 중구, 급경사지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 주요내용

#### ■ 대구중구는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인근 지역에 대해 급경사지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최근 기상이변이 지속돼 전국적으로 급경사지 및 저수지 등 재해취약지역에서의 인명·재산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내 급경사지 3곳에 사업비 3억2000만원을 들여 계측기,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 이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급경사지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여름철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 출처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1101>

◆ 일자  
2022. 11. 23.

◆ 지자체  
대구광역시 중구

◆ 출처  
경북신문  
<http://www.kbsm.net/news/view.php?idx=371740>

◆ 일자  
2022. 11. 23.

## 인천 연수구, 78곳에 ‘맨홀추락 방지시설’

### ○ 주요내용

- 인천 연수구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와 맨홀 빠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올해 말까지 맨홀추락 방지시설 시범설치
  - 구에 따르면 이번 시설 설치는 지역내 통행량이 많은 학교와 주요사거리 주변 78곳을 선정해 맨홀추락 방지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우기철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실시
  - 이번에 설치되는 맨홀추락 방지시설은 맨홀 뚜껑 바로 아래 그물 모양 철 구조물을 설치해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하수도에 추락하는 사고 방지 가능
  - 사업비는 모두 구예산으로 진행하며 저지대 등 집중호우 시 강우가 모이는 구간을 우선으로 오는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구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 불안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구는 하수배제방식, 관경,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옥련동 일원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할 예정으로 점차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
  - 또 구는 빈번해 지는 싱크홀, 포트홀 등 도로침하·함몰사고를 예방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최근 자체 매뉴얼도 수립해 시행
  - 특히 지반침하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도로일제 조사를 분기별 4회로 확대하고 자체인력을 활용한 굴착 공사장 현장점검 등도 강화

### ◆ 지자체

인천광역시 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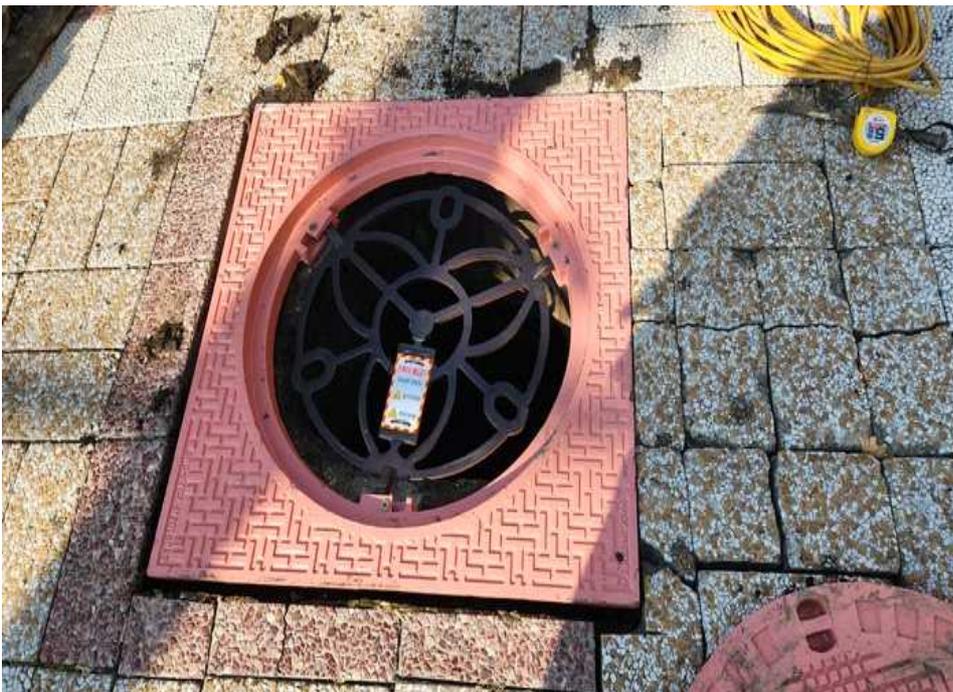
### ◆ 출처

시민일보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5084640560>

### ◆ 일자

2022. 11. 24.





New Chungbuk, Joyful people

2022년 11월 CSRI 재난안전 Brief